

해넘기는 과제들 ②

환경, 이대로 안된다

글 쓰는 순서

- ① 동국대 100년 대제는 있는가
- ② 환경, 이대로 안된다
- ③ 각 종단의 주요정책

2003년 불교계 화두는 '환경'이었다. 불교·천주교 등 4대 종교 성직자들이 2달여 간 진행한 새만금 삼보일배를 비롯해, 북한산 관동도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금정산 관동 등 크고 작은 환경 사안들이 불교계의 중심에서 있었다.

하지만 '풀지 못한 화두'는 내년에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의 불씨로 존재할 것이다. 여기에 새로운 화두들이 더해진다면 2004년에도 '환경'은 불교계 내부 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 넘기는 환경 사안들 중 대규모 국책 사업 중심으로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안을 모색한다.

● 2003년을 뜨겁게 달궜던 환경 이슈들

2003년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불교계 환경 사안은 '새만금 삼보일배'였다. 수경 스님을 비롯한 4대 종교 성직자들이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해 2달여간 진행했던 삼보일배는 한여름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국민적 감동을 낳았다. 자기반성과 참회라는 불교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삼보일배는 국내외 언론들의 집중 조명을 받았고, 이러한 울림은 사법부에도 전달돼 결국 공사 중단이라는 결과물을 생산했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금정산 관동 문제는 양산 내원사 산간 지출 스님이 관동 저지를 위해 38일간 단식 정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사 강행 방침을 발표해 일단락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지출 스님은 다시 단식 정진에 들어갔고, 45일간의 단식 끝에 10만 도농봉 소송인단 모집에 성공했다. 스님을 이겼을 토대로 100만 소송인단 모집 등을 통해 새로운 생명살림을 꿈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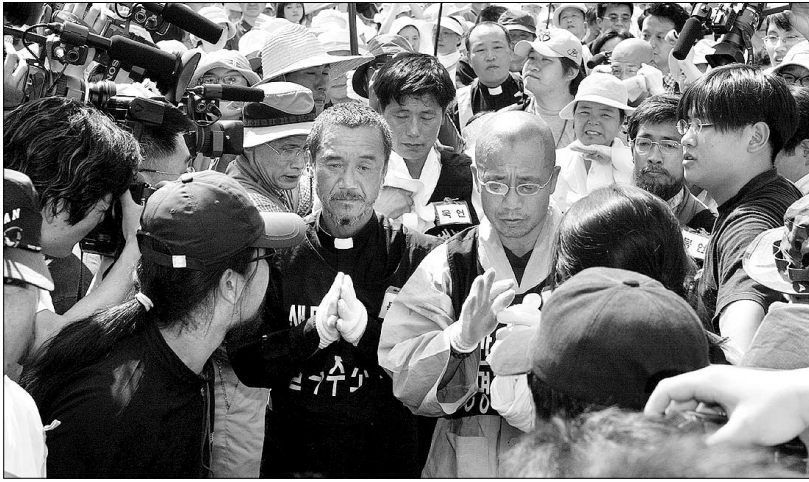
북한산 관동도로는 지난 4월 14일 조계종과 정부가 노선재검토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노선재검토위원회 활동 결과 관동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왔지만 위원들 3분의 2 이상이 합의해야 한다는 원칙에 맞춰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다시 정부는 공론조사라는 방식을 제시했고 조계종은 3대 해결절차를 맞대응했다. 결국 북한산은 정부의 관동강행 발표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렸다.

이 외에도 통도사 초산유원지 개발, 풍영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양양 운문사 민속박물관 건립, 서울 미다사 고층아파트 건립, 용인 화운사·광양 현불사 송전탑 설치, 부산 해월정사 아파트 재건축, 창원 김상사 국도 25호선 통과, 밀양 표창사 토사채취장 허가 등 수많은 환경 사안들이 2003년을 뜨겁게 달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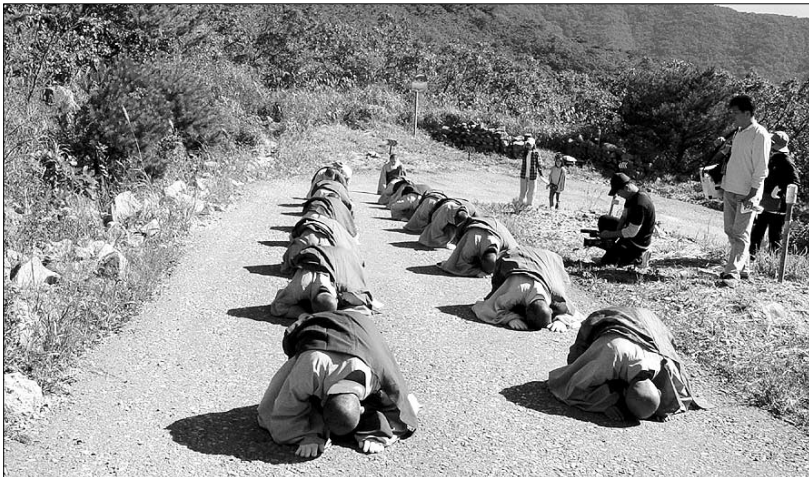
이러한 사안들은 대부분 미완의 숙제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04년에도 환경 문제는 불교계 큰 화두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대규모 국책사업과 환경영향평가

새만금 간척사업, 북한산 관동도로, 경부고속철도 이 세 가지 사안을 관통하는 것은 대규모 국책사업과 환경영향평가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국익=공익'이라는 믿음 체계 속에서 총장적 성장전략을 통해 '파이'를 키워나가면 결국에는 모두가 풍요의 결실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가치관이 지배하던 시절부터 시작됐다. 국가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공동체와 자연 생태계 파괴는 '국가 발전을 위해 감내해야 할 부작용' 정도로 이해됐다.



△ 화향법회에 진입하고 있는 새만금 삼보일배단. <현대불교 자료사진>



△ 지출 스님 등이 삼보일배를 하며 천성산을 오르고 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도 확대 재생산 돼 온 국책사업은 사업 정당성 자체를 문제

삼거나 사업진행 과정을 저해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경우 사회 전체의 공익을 저해하는 '반국가적이고 이기주의적인' 행위자 또는 집단으로 내몰았다. 즉 국책사업을 반대하면 반국가적이고 이기주의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라도 쉽게 비판하기 어렵게 만들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러한 논리는 지역과 계층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했고, 사안을 축소·편파시키기도 했다.

대규모 국책사업 뿐 아니라 일반 환경사안에서도 늘 지적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누락 및 부실이다. 환경영향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계획과정에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의 제도는 노선이 확정되고 실시설계가 승인된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환경 훼손 저감방안이나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주요 국책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과 허위로 얼룩진 배경에는 평가 협의기준을 위반해도 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제도적 결함이 있다. 위반할 경우 협의기준 초과과 과금제도가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적제재 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다. 허위·부실 작성은 공공에 대한 명백한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과 제재가 가해져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장은 "도로의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 관련 기관들의 환경에 대한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는다.

● 어떻게 비워야 하나?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많은 부작용을 나타냈음에도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 않는 데는 사업추진체계 속에 구조화 된 '무책임성'에 기인한다. 책임성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행정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해당 정책을 입안한 부처 공무원과 참여 전문가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사후라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국책사업과 관련한 연구기관의 타당성

● 사과의 틀을 바꾸자

모든 환경사안 근간에는 '속도의 관성'이 내재하고 있다. 자본의 효율성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짓밟아버린다. '노립'은 '계ולם'으로 치부되고, 인간 중심적 가치는 뭇생명을 무참히 살해한다.

주강현 한국민속연구소장은 "속도는 타인의 환경에 대한 회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얻어질 수 없다"며 "우리의 도로는 너무 많다. 지나침은 문화가 아니라 폭력이다. 문화의 시대, 문화를 선택할 것인가, 폭력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진다.

김원 건축환경연구소 광장대표 이사도 "자동차는 사람을 게으르게 하고 외롭게 하며 의타적으로 만들었다"며 "사대문 안

에 차 없는 도시, 모든 도로의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화, 전진으로 걷고 싶은 거리, 전차 부활 등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충고한다.

일본판 도농봉 소송인 '우는 토끼' 담당 변호사였던 후지와라 타케지(藤原隆爾, 일본 환경법률가연맹 이사장) 씨는 "우는 토끼 소송은 구성요소와 원고들과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및 자연의 가치나 보호의 중요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자연생태계와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법과 권리'를 고려하는 실천 활동이었다"라고 자평하며, 인간 중심의 사고를 사회적으로 비판했다.

정규호 바람과 물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변

입안부처·공무원·참여 전문가 명단 공개 정책 실패면 사후 법적 책임 물어야

환경영향평가 계획과정부터 병행 필수 허위·부실 평가서 명백한 범죄행위

차없이 걷고 싶은 거리·전차 부활 지나친 바람일까?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 대형 주차장 완비
- ◀ 입장료 무료
- ◀ 점심공양 가능
- ◀ 방생물 배달해 드립니다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 7755

점점 추워지는 겨울!
챙기셨습니까?

니를 위해, 가족을 위해
월드컵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를 챙겨주세요.

국내최대 오가피 제재자 **성 광 수**
햇오가피를 수확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올겨울 수확하는 햇오가피로 만들어 더욱 새로워진 수신토종오가피!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토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사매물 우리 아이들을 위한 수신토종오가피 오가피와 여러 씨앗으로 만든 **성광수 생씨앗배게**

문의전화는 **02)447-0047**